

전남

목포에 국제 규격 암벽등반센터

부주산 체육공원 내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건립
실내외·인공·자연암벽 갖춰... 내년 하반기 준공

목포시가 내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목포 부주산 체육공원내에 들어서는 국제적인 규모의 스포츠클라이밍(sports climbing) 센터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27일 상황실에서 '목포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건립공사 기본설계확정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목포시는 부주산 체육공원 산악자전거 코스와 연결되는 야외무대 인근 2000m에 국제 스포츠클라이밍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국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지난 10월 기본설계에 대한 1차 보고회를 가진 후 그동안 대한산악연맹과 클라이밍센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국제행사 및 시민들이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높이 16m ▲난이도 Wall 3번 ▲스피드 Wall 4번 ▲볼더링 경기를 할 수 있는 6m 높이의 야외경기장 ▲실내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암벽장, 선수대기실과 교육장, 샤워장 및 탈의실, 화장실, 관람석 등을 갖췄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상현 대한산악연맹 전라남도연맹회장 등 산악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시설로 국제 대회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오는 2012년 10월 세계산악연맹에서 주관한 80여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세계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대회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내년 하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스포츠클라이밍 센터가 개장되면 지난해 8월 개최한 목포 국제 축구센터, 국제파크골프장 등과 함께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와 함께 국제스포츠 메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장흥 '청태전' 웰빙관광상품으로 개발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산업화 추진

장흥지역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靑苔錢)은 떡차의 일종으로 동전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전차'(錢茶) 또는 돈차라고 불린다. 발효과정에서 파란색의 이끼가 낀 것처럼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흥군이 '청태전' 복원에서 한발 나아가 오는 2014년까지 경쟁력 있는 명품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웰빙관광 자원화에 발 벗고 나선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차 전문가와 연구원, 청태전 보존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태전 고품질 상품화 연구개발'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청태전 고품질 상품화에 관한 연구에 나서 청태전의 역사성을 고찰하고 ▲청태전 재단법 확립 ▲청태전 성분분석 ▲실용 상품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했다.

연구결과 청태전은 중재와 뒤음을 4:1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향과 맛이 가장 양호하고, 관능평가에서는 두물차 찻물색과 향·맛이 찻물차나 세물차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태전 최적 발효조건은 온도 30도·습도 70%에서 1개월 숙성후



자연저장시에 향과 맛이 가장 좋고, 저장장소는 초벌 황도용기에 저장시 가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군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장흥 청태전 자연산업화 클러스터' 향토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12년(도입기)에 야생차 단지조성과 제다시설 구축·상품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을 벌이고, 2013년(성장기)에 공동 발효시설과 마케팅·유통망을 확대하며, 2014년(안정기)에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웰빙 관광 자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태전에 대한 홍보 마케팅활동으로 안정적인 판로개척은 물론 대표적 인 웰빙 관광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중관객 크루즈 타고 여수엑스포 온다

오는 2012년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타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중국 심천시 강취여행사 유한공사와 최근 심천시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국제 크루즈를 통해 중국 여행객 등을 유치하기로 상호 협력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심천시 강취여행사는 중국내 강취

그룹의 직속기업으로 중국 유수의 여행 전문업체이다.

만명권 강취여행사 총경리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2010 상해 세계박람회와는 차별되는 특색있는 박람회라고 생각한다"며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중 심천·광저우 등 중국 남부지역의 관광객을 여수지역으로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기자노트

광주시 광산구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이 최근 확정되면서 공직사회에도 서서히 인사열기가 달아오고 있다.

늦어도 내년 1~2월이면 민선 5기들이 최대규모의 인사가 단행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진을 할 수 있는 '성과창출 프로

근 전직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무뎠던 직원 퇴출제에 대한 이해를 불사시키고 향후 진보인사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당시 삼고초려의 인사안은 전보대상자 개개인에게 희망부서를 신청받고 각 부서장에게도 추

광산구 조직개편 긍정적 변화

젝트' 추진원년이어서 공직자들의 관심은 뜨거울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때 광산 공직사회에는 '삼고초려'인사 추진이 공무원 퇴출제로 와전되면서 조직은 안정을 잃어가고 침체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인사관

계자들이 해명과 진화에 나섰지만 불신의 벽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인사관자의 투명한 인사방집만이 불안과 불만에 쌓인 이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시점이었다.

이에 민행배 광산구청장은 최

권을 부여하면서 최적인 조항을 만들어 내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게 최종목표였으며, 집중돼 있는 권한을 배분해 책임행정을 패도록 유도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곧바로 추진력증진에 연계시키는 방안이었다는 것.

이번 설명회 이후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

자들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옛말을 되새겨 불

일이다.



기원태 <중부취재본부 기자>



겨울철새들의 낙원 고흥만 간척지

고흥만 간척지 일원이 고니와 노랑부리저어새, 기러기, 기창 오리 등 겨울철새들의 낙원으로 변모했다. 고흥군은 겨울철새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명예 야생 동식물보호원 4명을 배치해 철새 도래지를 순찰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

<고흥군 제공>

여수박람회 준비위원장에 김대성씨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여주시준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27일 김대성(67) 전 2010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여수박람회 여주시준비위는 지역 민간차원의 박람회 준비기구로 김광현 위원장이 사의를 표시하면서 후임이 선임됐다.

외무공무원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전 세내갈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을 거쳐 2001년부터 지난 2003

년까지 2010여수 세계박람회유치위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 명예홍보대사, 여주시준비위 상임집행위원 등으로 박람회 여수 유치 및 개최, 지역발전 등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Advertisement for ShinYang Park Hotel featuring a wedding package. Text includes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Special Rate", and "2011 Wedding Festival".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services like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aeyoung Real Estate, listing services like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hinjin Gongin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listing services like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nd "주식회사 에셋코리아".